

‘스바냐 2 장, ‘여호와와 그의 날에 있음 심판 2 – 이방에 대한 심판’

➤ 들어가기

본 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속히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했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스바냐 선지자의 권고 => ‘여호와와 그의 날이 임하기 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1-3 절)

1)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곧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

▪ 1-2 절 주목!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①. 우선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칭하며 책망!

a.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그 동안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외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던 것을 책망한 것!

-> 예레미야 6 장 15 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b.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은 점점 더 무디어지고,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②. 이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날을 3 가지로 강조하면서 회개의 급박함을 권고함!

a.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 3 가지 표현 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나타나는 한 때, 곧 심판의 때를 강조함!

=> 결국 자신을 통해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간절하게 권고하고 있음!!

2)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 대조되는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권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 3 절 주목!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흑시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 ①. 우선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누구인가?
 - >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 땅 살고자 힘쓰는 참 신앙자들!

- ②. 스바냐 선지자는 이 경건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나?
 - a. 끝까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가르침!
 - b. 그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르침!!
 - > 참고로 ‘혹시’란 단어가 마치 불확실성의 의미를 담은 듯 보이지만 오해하지 말 것!
 - > 이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앞에서 말한 그런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임한다 하더라도 ‘**아마 너희는 숨김을 얻을 것**’이란 의미!!
 - >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증거!
 - =>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고자 힘쓰자!

2.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4-15 절)

1) 블레셋에 대한 심판! (4-7 절)

- 먼저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 ①. 우선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타인 서남부 지방, 곧 지중해 연안에 거주한 그레데 섬에서 온 족속으로 5 개 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던 연방국가! (창 10,14, 렘 47:4, 암 9:7)
 - 블레셋의 5 대 도시 => 북쪽부터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 ②. 저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가장 대표적인 족속!
 -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때는 사사 시대부터! (삿 10-16 장)
 - 대표적인 악행 2 가지만 예로 들면,
 - a.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감! (삼상 5 장)
 - b. 여호람 왕 때,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과 성전의 제물들을 약탈해 감! (역대하 21 장)

- 그럼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 족속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나?
 - ①. 4 절 주목! =>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뽕히리라**’
 - a. 곧, ‘버림 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뽕힐 것!’ =>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심!!
 - >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취됨!

 - b. 그런데 4 절 보면 블레셋을 대표하던 가장 강한 성이 언급되지 않음! 어디? _____
 - => Why? 스바냐 시대(B.C. 627-626)엔 이미 _____ 때문!!
 - 다윗 = 가드 사람을 천부장으로 둬! // 유다 왕 웃시야 = 가드 성벽을 무너뜨림!
 - 앗수르왕 사르곤 2 세 = B.C 715 년 팔레스타인 침공 => 이후 성경엔 언급되지 않음!!

②. 5 절 주목!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a. 블레셋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도 화가 미칠 것’이라 예언!

=> Why? => ‘그렛 족속’은 블레셋과 국경을 같이 두고 살았던 족속!

따라서 저들은 늘 블레셋과 뜻을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에 자주 동참함!!

b.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친구 따라 은혜 받는 곳만 가는 성도되자!!

③. 6-7 절 주목!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a.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있을 것’이라 예언!!

=> 완전한 Up & Down 의 변화!!

b. 특히 모든 지경이 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 이라 예언!!

=> Why? =>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

=>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을 예언!!

2)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8-11 절)

▪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①. 아브라함의 조카 ____의 두 딸 중 장녀가 낳은 아들 모압의 후손으로, 사해 동편 고원지대에 거주했던 민족

②.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압 땅을 지나가려 할 때, 이것을 거절하며 막았을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던 왕!

▪ 암몬은 어떤 나라인가?

①. 룻의 작은 딸이 낳은 ‘벤암미’의 후손으로, 요단 강 동편 곧 압복 강 상류에 거주한 민족!

②. 저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에돔과 함께 유대를 침략하였고, 길르앗을 침략하여 잔인한 살육을 행했던 민족!!

▪ 그럼 하나님은 이 두 족속 곧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나?

①. 8 절 주목!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 a.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말들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며, 저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며 경계를 넘어 침략하여 살육과 약탈을 행한 죄를 지적!!
- 이것은 오래전 출애굽 때의 일부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까지 저들의 행한 모든 죄 종합해 지적하신 것! => 결국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밝히신 것!!

②. 9-10 절 주목!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찢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백성을 훼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 a.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목!
=> 이것은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단을 강조하며 나타내신 것!
- b. 그럼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인가?
=> 고돔과 고모라 같이 황폐한 땅으로 만드실 것!! => 완전한 폐망을 예언!!
=>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저들의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
- c. 그런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블레셋과 비교해 보자!! 엄청난 진노와 분노의 마음이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닌가? Why?
=>

3) 구스에 대한 심판! (12 절)

- 우선 12 절 주목! => ‘구스 사람들과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 그럼 구스는 어떤 나라인가?
 - ①. 구스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나라! - 애굽 남쪽 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함!
 - ②. 그런데 스바냐는 사실 구스에 대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진 않다는 것!!
=> 단지 저들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심판만을 예언!!
 - ③. Why?

4) 앗수르에 대한 심판! (13-15 절)

- 앗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 ①. 앗수르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그 수도는 니느웨 성이었음!
 - ②. 앗수르의 조상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바벨론 북쪽에 자리를 잡고 중동 지방을 다스렸던 민족!

③. 저들은 다윗 왕 시대에 극도로 쇠약해졌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며 쇠약해진 기간 수도를 니느웨로 옮긴 후 점점 더 그 세력이 강해진 후,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됨!

■ 그럼 하나님은 이 앗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나?

①. 13-14 절 주목!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a.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실 것이란 표현을 통해 앗수르가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
=>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각종 짐승들만 있는 땅으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

②. 15 절 주목!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었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 하나님은 앗수르의 죄를 단편적으로 지적하시기 보다는 저들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교만과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심판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음!!

a.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 곧 니느웨 성의 부귀 영화만을 자랑하며 안일함에 빠져 살던 민족!!

b.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며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뜻만을 위해 범죄하며 살던 살던 민족!!
=> 결국 이런 앗수르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거부하며 자신만을 위해 온갖 죄를 범하며 사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불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것!!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며 새로 깨달거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나눔